

예방부터 회복까지...광양시 시민 정신건강 돌본다

주 1회 정신과 전문의 상담실 운영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도 제공

광양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필두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팔 걷고 나섰다.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과 등록 회원의 정신건강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시민 대상 맞춤형 심리 지원과 정신건강 홍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센터는 '실버 연극봉사단'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변화와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등을 알리고 있다.

유·아동 눈높이에 맞춰 생명 존중, 생명 사랑 등 정신건강 교육도 함께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센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실버 연극봉사단'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인형극을 선보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바우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보건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상담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센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과 '사회적 안전망'을 이뤄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도의사회,

전남도약사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광양에서는 동네 의원 27곳과 약국 23곳이 동참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본인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기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

광양시는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

의료기관 검진·상담 때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3회차(총 5만원 이내·1~3회차에 따라 차등 지급)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주 2회에 걸쳐서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훈련, 정서관리, 여가 활동·운동 등 다양한 주간 재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별 수요에 맞춰 증상 관리,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 훈련, 응급위기 중재 등 사례 관리도 진행한다.

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고위험군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과 18일부터는 백운고등학교부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10일에는 봉강면사무소, 6월10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아·통장 대상 생명사랑사업 설명회·간담회도 연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양성에 힘쓰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회복까지 돕겠다"며 "정신질환자도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90%까지 지원

광양시 6월21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시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소통 채널을 넓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광학문자판독기, 특수마우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1435개이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6월21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양시청 디지털정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18일 전남도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사항은 광양시 디지털정보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홍신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국가정원의 '수상 퍼레이드' 등 순천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순천시 제공>

순천 야경 제대로 즐긴다...오늘부터 '나이트 가든 투어' 운영

시범 운영 한달간 전석 매진 인기

순천국가정원과 동천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순천시는 도심 야간 관광 상품인 '나이트 가든 투어'에 대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끝내고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나이트 가든 투어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전석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들은 도심 여행 버스와 정원드림호를 타

고 순천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해설사와 동행하며 순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월요일을 뺀 평일에는 오후 6시 20분부터 밤 9시까지 나이트 가든 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가든 투어와 함께 원도심 자유 여행도 추가로 즐길 수 있다. 순천시는 원도심 자유 여행객을 위한 1만원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루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에서는 순천역에서 시작해 순천 도심 곳곳을 둘러보고 국가정원 야경을

즐긴다.

도심 여행은 남문터 광장, 중앙시장, 원도심 거리와 옥천, 철도관사 마을 등 순천이라는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동선이다. 나이트 가든 투어에서 국가정원의 시크릿 어드벤처, 수상 퍼레이드, 스페이스 브릿지 등 정원의 새로운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행 예약은 나이트 가든 투어 공식 누리집(nightgardentour.co.kr)에서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평일 1만9000원, 주말 2만9000원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LG화학 여수공장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 구축

작업 효율 높이고 재해 줄여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이현규 상무)은 디지털 변혁(DX)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재해를 줄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변혁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여수공장은 최근 '플레어 스택'(Flare Stack·배출가스 연소탑)이라는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 효율을 높였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 액체 성분이 매연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시킨 뒤에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다. 공정 이상 감지 체계는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불꽃, 그을음 정도를 자체적으로 인식해 상황을 감지한다.

연소에 필요한 산소 투입량을 조정해 잔여 성분이 완전 연소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공장 운전원이 수동으로 처리했지만, 인공지능(AI)이 자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산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여수공장 측은 설명했다. 여수공장은 현재 운용 중인 1개 공장과 더불어 추가 5개 공장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소·밀폐 작업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등도 완전 자동화를 이뤘고, 인공지능 기술을 품질 점검에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계가 1차적으로 분류한 제품을 검사원들이 수동으로 재분류했으나, 인공지능 분류를 통해 검사원 간 편차를 좁혀 품질 신뢰도를 높였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여수공장은 제품 생산부터 설비 유지보수,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생산 설비 전반에 DX를 적용한 '스마트 플랜트'(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줄여 작업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16일부터 7월까지

성인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구례군이 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등 국민들의 건강행태와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표본 가구로 선정된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자 조사표(태블릿PC)를 이용해 일대일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에 공표되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나 지역보건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니 주민들은 방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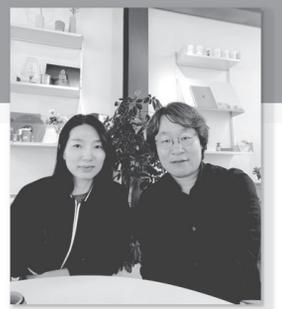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